

안철수 “NO”... 새정치 다시 혼돈

〈혁신위원장직 거부〉

安 “당 혁신 당위성 공감하지만 내가 맡는 것은 부적절”

조국 교수 적임자로 추천...최고위원회의의 재요청 의견 모아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20일 당 쇄신작업을 주도할 ‘초계파 혁신기구’ 위원장을 맡아달라는 문재인 대표의 제안을 공식 거부했다.

이에 따라 혁신기구 위원장 인선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물론 문 대표의 리더십이 타격을 받으면서 당내 내분 사태도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어제 문 대표와 혁신의 당위성에 대해 공감한 바 있으나, (혁신위원장) 제안을 받고 제가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다”며 “혁신위원장은 당 밖의 인사가 맡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라는 말씀도 드렸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어 “어제 발표하지 못한 것은 혁신위원장 인선이 될 때까지 발표를 유보해 달라는 문 대표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불필요한 역측을 피하기 위해 문 대표의 양해를 구하고 오늘 말씀 드린다”고 설명했다.

그의 입장 발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전 대표가 혁신기구 위원장직 수락을 요청기로 의견을 모은 직후 이뤄졌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의 뜻을 모아 부탁드렸던 것인데 좀 어렵다.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설득 노력을 하려 했는데 아쉽게 됐다”고 설명한 뒤, “어제 안 전 대표가 당의 혁신에 공감하며 혁신기구 위원장으로 조국 교수를 추천했

었다”고 덧붙였다.

안 전 대표의 혁신기구 위원장 수락 거부로 당내에는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당 최고위원들은 이미 오전 비공개 회의에서 안 전 대표의 위원장직 수락을 전제로 논의했다는 점에서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당내에서는 문 대표의 리더십이 다시 한번 상처 입으면서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김한길 전 대표는 이날 “문 대표의 상황 인식은 ‘우리만 옳다’는 계파주의의 전형적인 독선과 자만심, 적개심과 공격성, 편 가르기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비노 진영에서는 문 대표가 안철수 카드 책임론을 불식시키고 비노와 호남 정치권의 고립을 시도하다가 실패하면서 당내 입지가 더 좁아졌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안 의원의 거부에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위원장직을 재요청기로 했다. 문재

인 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안 전 대표를 다시 한번 설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김성수 대변인이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한편, 당 안팎에서는 혁신기구 위원장 선임과 관련, ‘조국 카드’가 대안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조 교수는 문 대표의 ‘육참갈단’(肉斬骨斷·자신의 살을 베어 내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는 뜻)을 비롯, ▲도덕적·법적 하자가 있는 인사들의 예외 없는 불출마 ▲호남 현역의원 40% 이상 물갈이 ▲4선 이상 중진 옹호 등의 파격적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당내에서는 외부인사보다는 내부인사가 혁신기구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흐름이 강하지만 내부 인사 가운데 누가 위원장을 맡더라도 친노와 비노 진영을 모두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외부 인사 영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순천에 의과대학 유치 본격화

이정현 의원 ‘국립의대 설치 법안’ 발의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순천에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유치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기존 의과대학과 부속 병원을 유치하는 대신 새로운 국립 의대·병원을 설립, 순천에 유치를 추진키로 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의료취약지에 부족한 공공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법안은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하고 교육·연구·진료를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학생은 시도별 의료취약지 규모와 필요 공공의사인력 등을 고려, 시도별로 일정 인력을 선발토록 하고 학생들에게는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무상으로 학비 등을 지원토록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생활여건과 교육환경 등으로 인해 의사 인력이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으로 집중돼 있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의 의료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가 없



는 시군구가 각각 57곳과 55곳에 이르는 등 농어촌 시·군·구에는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거나 아이들이 아프거나 다쳐도 갈 수 있는 병원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 공공의료기관에 필요한 인력은 약 1100명~2200명에 이르며 이를 충원하기 위해서는 연간 120명~150명의 공공의료인력의 양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군의료분야의 경우, 중장기 군의관 비중이 4.7%에 불과해 의료 인력 부족 및 질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특히 “이 법안을 만들기 위해 지난 10개월여 동안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며 준비해 왔다”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곧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순천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순천·곡성 보궐선거에 출마하며 순천에 의대와 부속 병원 유치를 공약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청태 징계’ 26일 결론

만장일치 안되면 비밀투표

野 윤리심판원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20일 오전 회의를 열어 ‘공갈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정청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26일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정 최고위원은 20분 가까이 자신의 입장을 밝힌 뒤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의도 등을 추궁하는 9명의 심판위원들 질의에 적극 답변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 출석하면서 상사 2개 분량의 소명 서류를 제출했다.

위원들은 정 최고위원이 떠난 후에도 20여분간 회의를 이어갔으며, 제출된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과 심판 기일이 일주일을 넘겨선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해 26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26일 회의에서는 위원들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징계 여부 및 징계수위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만장일치로 징계수위가 결정되지 않으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구체적인 징계방안을 정하게 된다.

당규에 따르면 정 최고위원이 징계를 받게 될 경우 제명, 1개월 이상 2년 이하 당원 자격정지, 1개월 이상 2년 이하 당직자격정지, 당직직위해제, 경고 등 5가지 처분 가운데 하나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심판원은 일부 당원들이 주승용 최고위원에 대해 징계요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이날 조사명령을 내리고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윤리심판원장이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청태 최고위원 ‘공갈 발언’ 관련 윤리심판원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기부 구성 잠정 합의

연금개혁안 28일 처리키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부 구성안에 대해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 또 지난 6일 처리가 무산된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간사에 맡겼던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이 합의했다. 조·강 의원은 각 당의 원내지도부에서 협상권을 위임받은 상태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우선 “2015년 5월2

일 합의문을 지켜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5·2 합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고, 공적연금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 및 사회적기부 등을 동시에 발족하는 것이었다.

논란이 됐던 사회적기부 구성안의 문구에 대해서도 조·강 의원은 절충안을 초안 형태로 마련했다. 다만, 각당 지도부의 추인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이날 합의문에는 담지 않았다. 실무기구가 합의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라는 수치는 여권의 반발 기류를 고려해 사회적기부 구성안에

명기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대신 소득 대체율 인상을 위한 명확한 ‘담보’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사회적기부 구성안에 대한 학계 전문가 약 10명의 의견을 이번 주말까지 수렴해 오는 25~26일 중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이후 국회 특위 구성 결의안과 사회적기부 구성 규칙안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동시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혜자 의원, 상무시민공원 관광자원화 교부세 5억 확보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상무시민공원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상무시민공원 관광자원화사업은 공원이 조성된 지 20년이 넘어 시설 등이 노후화되고 훼손되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공원 내 각종 시설물을 재정비하여 체육활동과 문화가 어우러진 명소로 조성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로 지역주



민들의 휴식처가 될 명품 공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상무시민공원 관광자원화사업의 지난해 예산으로 문화관광부 광동회계 20억원과 산림청 광동회계 3억6000만원 등 모두 23억6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다. / 박지경기자 jkpark@

황주홍 의원 “부동산 미등기뎀 과태료 부과사실 알려야”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신고필증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상 거래당사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60일 이내에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



라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통상 잔금지급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만약 기일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거래당사자 양측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정 프랜차이즈 개발회사 / 2015 중소기업청 지정 창업학교 운영기관 / 2015 조선이공대 외식프랜차이즈 최고경영자과정 운영기관 www.startbiz.co.kr

탄탄한 광주, 전남에서 프랜차이즈 본사를 만들고 싶다면??

시스템구축에서 가맹점모집까지 소상공인창업전략연구소 조계현소장의 23년 노하우를 활용하십시오!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컨설팅도 역시!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컨설팅도 역시 소상공인창업전략연구소! 예비창업자의 안전창업을 위한 12단계 리스크 필터링시스템 자체개발!

조계현 소장
소상공인창업전략연구소

광주일보 창업칼럼니스트
조선대학교 자식경영연구원 전문위원
(사)한국소상공인컨설팅협회 부회장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문위원
(사)한국신학협동연구원 이사
(사)지역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사)한국소상공인마케팅협회 자문위원
(사)광주전남프랜차이즈산업진흥협회 수석부회장

이제는 광주에서도 클래스가 다른 창업컨설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컨설팅

신규 또는 운영중인 업체의 프랜차이즈 사업화를 원한다면 프랜차이즈 컨설팅을 이용하세요!

- 프랜차이즈 아이템개발 및 보완
- 프랜차이즈시스템 구축
- 프랜차이즈 운영전략 수립
- 프랜차이즈 홍보마케팅

창업 컨설팅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예비창업자는 안전창업 컨설팅을 이용하세요!

- 예비창업자 창업컨설팅
- 아이템 분석 및 점포개발
- 메뉴(상품, 서비스)전략구성
- 차별화 운영전략 및 홍보마케팅

경영개선 컨설팅

운영중인 업체가 매출이 부진하다면 경영개선 컨설팅을 이용하세요!

- 운영진단 및 대안전략 수립
- 메뉴개발 및 보완 인테리어 리모델링
- 원가절감 및 매출강화
- 직원교육 및 홍보마케팅

지역특화사업 컨설팅

지자체의 지역특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싶다면 지역특화사업 컨설팅을 이용하세요!

- 농식품 6차산업 컨설팅
- 정부 공모사업 컨설팅
- 문화관광 체험상품 개발
- 지역특화상품 연구, 개발
- 협동조합, 농업법인 컨설팅

소상공인창업전략연구소 The small enterprise establishment strategy institute
부설 | 세종외식산업연구원

광주, 전남권 창업中心 - 소상공인창업전략연구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885-7 승림빌딩 2F

상담 대표전화 062) 515-0300